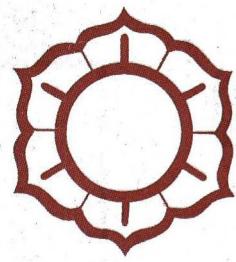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제기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5월 1일
토요일
제55호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부처님 오신날 봉축사

오늘은, 불기 2548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요, 진리의 등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 사바세계에 나하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리도록 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역사의 시현을 통해 자아 실현의 길을 열어 주셨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정각(正覺)의 근본인 불성(佛性)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으나, 부처님 오신날! 이 날은 바로 인간존엄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며 광명의 날인 것입니다.

금년은 한 해의 반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유난히 큰 고난과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무 후무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념과 세대, 지역간의 갈등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총선에 이르러서는 더욱 깊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국내정세에 더욱

내 허물을 깊이 참회하라

이 한반도의 한 출인 저 북녘에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대형 참사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화합과 이해, 사랑과 보시로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내 허물을 깊이 참회하는, 참 수행자의 자세로 거듭 나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은, 일체중생을 고해로부터 해탈시키고 자함이요, 중생들에게 짙게 드리워진 무명(無明)의 그늘을 환하게 밝혀주시기 위함입니다.

불기2548년(총기33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합장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에 의강 종사 추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풍토 조성



총지종 종립 관음사는 4월 16일 동해중학교에서 제94차 동

산불교 사암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종단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 중앙종의회 의장, 삼밀사 주교로 재임중에 있다.

한편 의강 종사는 이사장 추대에 즈음하여 “원용과 화합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해중학교 교장과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총지종 종립학교로써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중학교 이사회를 개최하여 만

장일치로 의강 종사를 동해중학교

교 이사장으로 추대하였다.

의강 종사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총지종에 입문하여 사감원장, 원의원,

부산경남 교구장, 중앙종의회 의장, 부

총기33년(불기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법신불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통리원장 우승

재무부부
사교정부

서울경인 교구장 지성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부의장 원송

사감원장 법성

부산경남 교구장 혜암
충청전라 교구장 수중원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이 달의 종조법설

생멸없은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난다. 현실은 유학하고 지리는 무한하니 심성을 먼저 닦아 과학을 일으키자. 유상은 유한하고 무상은 무한하다. 물질이 발달하니 마음도 같이 닦자. 진리는 채가 되고 현실은 그림자라 채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채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다.

총지종 캠페인

진정한 행복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들 자신의 행복을 바랄 것이다. 물론 그 행복의 종류나 척도는 각각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요즘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너무 풍족함에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조건 많고 커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 때문일 것이다.

옛날 어느 나라 왕이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많은 권력과 재물 그리고 예쁜 왕비와 후궁들을 남겨두고 혼자 죽는다는 것이 너무 아울렛했다. 그때 어느 한 수행자가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의 속옷으로 몸을 닦으면 병은 완쾌하리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왕은 자신의 왕국에 있는 모든 가정을 신하들을 시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가정도 가족 모두가 민족하는 행복으로 가득한 집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왕의 명령으로 지방에 있는 행복한 가정들을 조사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던 한 신하가 어느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 앞을 지나



총기33년(불기2547년)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총지종 보살들이 연꽃을 들고 연희단으로 입장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있다.

월 23일 오후 3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오전 10시에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부처 열리는 연등축제에 참가하고, 5월 26일 오전 10시에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법상원 기로스승 열반

을 때도 빈손으로 오듯 갈 때도 빈손으로

기로스승인 법상원 전수님이 4월 3일 열반하여 4월 5일 부산 삼밀사에서 발인식을 봉행한 후 법체는 포항 시립 화장장으로 옮겨져 대비식을 가졌다.

법상원 스승님은 총기 7년 스승으로 서의 관정수계를 받은 후 밀양에 위치한 밀행사의 주교로 임명되어 수행하다가 총기22년 기로스승이 되어 현직에서 물러나셨다.

이날 발인식에서 삼밀사 주교인 의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총지종 상반기 49일불공 회향

총지종은 4월 8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 및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상반기 49일불공 회향불사를 봉행하였다.

상반기 49일불공 회향불사에서 우승 통리원장은 “우리는 불공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청정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을 할 때는 나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번뇌와 집착, 망상, 분별심 등을 놓아 버리고 인간의 본래 그 청정한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하며, 불공중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다가오는 마장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원을 발원하고자 할 때는 자심으

로 해야 합니다. 아마 교도분들이 49일 동안 지국정성으로 불공을 하다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실 것이라 믿으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고 말하였다.

인사발령



사회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희심

죽비소리

지혜로운 이의 행하는 바는
쌀을 쟈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이들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쟈서 밥을 짓는 것과 같네

사람마다 밥을 먹어 주린 배를 채울 줄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고치려고는 하지 않네
행과 지혜 갖추는 것 수레의 두 마퀴와 같고
자리이다 보살행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발심수행장』중에서



사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총기 33년(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께서 나 투신 참뜻을 알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보시행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색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 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베푸는 걸 좋아하니 그는 그 선 행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신 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무르셨고,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연민과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연민과 사랑의 마음인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옛날 인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주면 그 공덕으로 자신에게 좋은 과보가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수행자를 만나면 자신의 복을 짓고 해준다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었다. 그런 까닭에 도움을 받는 사람을 복전 또는 복발이고, 자신의 것을 남에게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행위를 통해 텁텁하고 짐작으로 인해 생겨난 번뇌를 없애주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행위는 '콩심는데 콩나고, 팔심는데 팔난다.'라는 구절처럼 좋은 인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불교 인과법의 원리와 상통한다.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및 일반시민들은 사찰을 방문하여 자기와 가족들의 소원사항을 발원지에 적어 연등을 달은 것에 그쳤지만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주변에 살고 계시는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고아 등을 초대하여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는 행사를 마련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부처님 오신날이 되었으면 한다.

중·장기 계획과 정책 수립 시급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총지종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하여 제63회 춘계강공회를 원만히 회향하였다. 그러나 강공회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은 거론되지 않고 현안의 문제점들만 논의되어 차후 강공회 및 승단총회에서는 회의 형태 및 안건에 대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강공회는 봄과 가을에 매년 2번씩 전국 스승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의 현안과 문제점을 조명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종단의 학회과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매번 실시된 강공회를 보면 일년 내내 진행될 행사나 단기적인 사항, 과거에 집행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강공회에 참석하고 있는 스승님들의 관심과 호응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물론 참석하는 스승님들의 적극적인 의제 제안과 제안된 의제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의를 진행하는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의제선택이 아쉬운 혼편이다.

총지종도 창종 33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하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볼 때 사원규모나 교세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세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집행부의 일만이 아니라 전 승단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와 격려, 지원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승단의 동의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시대 물결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시대의 물결에 동승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존 불교계의 교회방편은 이미 시대를 앞서가고, 기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방편의 변화와 개발로 교세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총지종도 미시적인 시각을 버리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교세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종령 추대 및 현안문제 다뤄

제63회 춘계강공회 원만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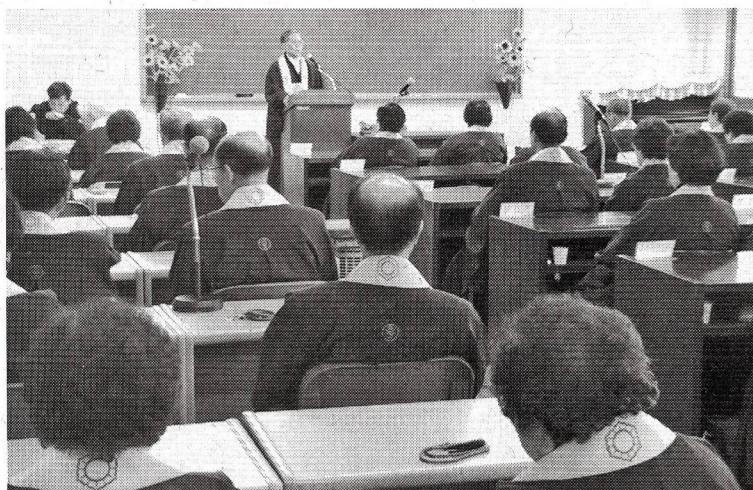
총지종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님과 종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63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하여 원만하게 회향하였다.

이번 강공회는 승단총회, 종의회,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등 각종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승단총회에서는 일부 종의원이 결원됨에 따라 법공, 해정, 정사를 종의원으로 선출하고, 제8대 종령인 수성 대종사가 임직함에 따라 후임 종령의 추대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승단에서는 종단의 현안문제가 산적해있고, 지난해 5월 4일 록정 종령 임직이후 종단의 최고 어르신인 종령의 공백기가 길어짐에 따라 수성 종령 49재 회향일인 5월 15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제9대 종령을 추대하여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전사원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 전국 스승님들이 춘계강공회에 참석하여 승단총회에서 종단의 현안문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종 문서의 전산화와 정보화로 포교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의제를 제안하였으나 아직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하여 취소되었으며, 교도들의 장례식에 종단을 홍보하기 위해 장례식 때 번의 사용에 대한 의제를 제작한 후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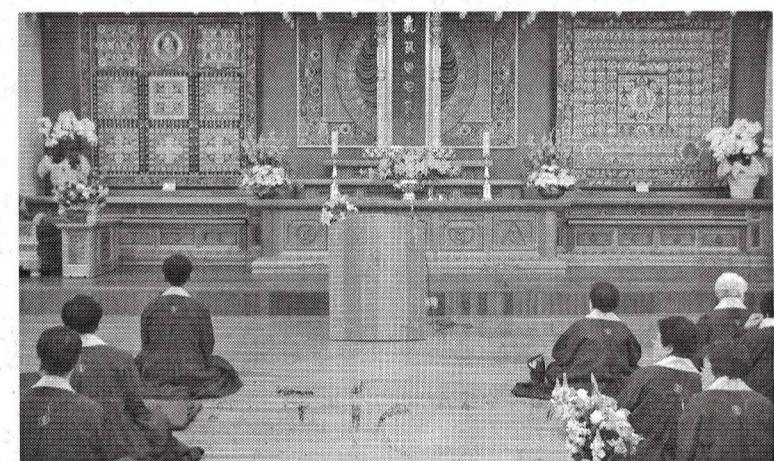
종의회에서는 총기 32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총기 32년도 결산 감사의 감사결과를 청취하고 수정사항을 적자하고 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으로 제작하여 법공양 차원에서 보급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샘플을 제작한 후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

종의회에서는 총기 32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총기 32년도 결산 감사의 감사결과를 청취하고 수정사항을 적자하고 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14대 우승 통리원장 취임식

양로원설치, 기도도량 건립



◆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한 제14대 우승 통리원장 취임식에서 새롭게 취임하는 우승 종사를 축하하며 종단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승단총회에서 제14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우승 통리원장 취임식이 4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총지사에서 전국 스승님들과 총지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취임식은 제13대 통리원장인 법공 종사의 이임식과 동시에 치러줘 유가념밀과 이임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 통리원장 법공 종사는 이임사에서 "종단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임하게 되어 송구스러워 차기 통리원장이 종무를 잘 수행하여 종단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금까지 통리원장을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신 종단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종단불사와 업무들이 많지만 괴산수련원에 양로원을 건립하는 문제와 수행전문도량을 조성하는 세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지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감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리원장을 맡아 2개월 생활하였지만 전집행부의 노고와 애로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임자들의 추진 업무를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원칙과 소신으로 처리하고 지켜 할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형평과 기준이 살아 있는 종무행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원칙은 절대 지켜지면서 상생과 화합을 위해 대화로써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원칙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과제이자 소임이며, 크게는 전 승단의 장래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단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참고하여 종무행정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종단불사와 업무들이 많지만 괴산수련원에 양로원을 건립하는 문제와 수행전문도량을 조성하는 세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노인복지센타

정직한 사랑

8시 40분, 저희 센터 치양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김없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 때가 되면 묘한 긴장감으로 하루의 시작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모양새도 다양합니다. 어린 아이 마냥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어르신, 당시 몸도 편찮으시지만 다른 분을 부축하시는 어르신, 매일 오는 센터지만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어르신, 아침부터 무엇이 그토록 화가 나시는지 주먹을 불끈 쥐고 중얼거리며 나타나는 사회복지사 이윤희

다. "아드님이 효자 시네요!"

할아버지의 거의 말씀이 없습니다. 센터에 있는 시간에도 할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거나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뿐입니다. 그러나 거동도 불편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절대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아마도 아들이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14)

태장계 만다라 ‘변지원(遍知院)’의

불안불모(佛眼佛母) ·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

지난 호에서 변지원(遍知院)의 존상(尊像) 가운데 중앙의 일체여래자인(一切如來智印)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일체여래자인의 좌우에 나열해 있는 존상 중에서 ‘불안불모(佛眼佛母)와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변지원의 중앙에 일체여래자인(一切如來智印)이 있고, 그 왼쪽에 불안불모(佛眼佛母),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 가야가업(伽耶迦葉)이 있다.

오른쪽으로는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真實菩薩), 우루빈라가업(優樓頻羅迦葉)이 나열해 있다.

불안불모(佛眼佛母)는 모든 부처를 탄생시키는 어머니를 뜻하는 것으로 지혜의 창조를 의미한다.

결국 대일여래의 지혜를 기리카는 말이다. 불안(佛眼)은 지혜인(智慧眼) · 허공안(虛空眼)이라고 한다. 허공인(虛空眼)장애가 없어 어떠한 곳에도 갈 수 있으며, 청정·평등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시키는 것처럼 허공안(虛空眼)은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게 하는 길잡이로서 어두운 밤을 해매는 중생을 낭김 없이 관찰하여 불도(佛道)에 인도(引導)함을 상징한다.

불안불모에 대해서『대일경』[구연품]은 ‘황요진금색(見曜眞金色)’이라 하여 ‘진언에도 빛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금(金)이 재보(財寶)의



불안불모



대용맹보살

불안불모는 모든 부처를 탄생시키는 어머니

대용맹보살은 중생의 근심을 없애주는 보살

왕이요 유품으로서 세인(世人)들을 부귀(富貴)케 하는 것과 같이 금색(金色)은 불안불모(佛眼佛母)의 지혜의 빛이 중생들을 증진함과 함께 하고 안온무외(安穩無畏)케 함을 상징하고 있다. 종자자(種子字)인 ‘가(ga)’와 ‘감(gam)’은 gagana의 머리글자에서 유래한다. 그뜻은 ‘허공(虛空)’을 나타낸다.

이 불안불모의 밀교명호(密教名號)는 ‘수승금강(殊勝金剛)’이다. 유품가는 금강불보라는 뜻이다. 삼매야형은 불정안(佛頂眼)이며 존형(尊形)은 황

고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대용맹보살의 진언은 ‘나마 시마다보다남 살바타비마티비기라나 다르마다투니르자타 삼 삼 하 스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것에 걸쳐서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분이시어! 법계로부터 태어난 분이시어! 삼 삼 하 스바하!’의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금색으로 빛나는 색 연화(蓮華)에 앉아 선정인(禪定印)을 맺고 있는 모습이다. 결인의 모습印相은 허심합장(虛心合掌)이다.

불안불모의 진언은 ‘나마 사마다 보다남 감 가 가나바라기사내 가나사마 살비트로가타비기 사리삼바베이’ 즐랄라 나모 모가남 스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감! 허공과도 같은 자여! 어느 곳이나 모든 곳에 출현하는 자여! 번뇌를 항복받은 자여! 빛나라! 효힘이 현자하신 분에게 귀명하옵니다. 스바하!’의 뜻이다.

대용맹보살은 지혜의 작용을 여의보주(如意寶珠)와 검(劍)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용맹보살은 마음먹는 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보물처럼, 중생의 고뇌에 찬 절규에 응하여 중생의 근심을 없애주는 보살이다.

검(劍)은 번뇌를 끊는 지혜를 상징한다. 한없는 중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수행이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불퇴전(不退轉)의 용감함이 이틈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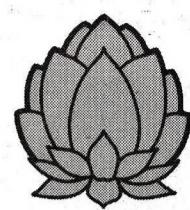
석준께서 성도(成道)하실 때 세간의 제천(諸天)들이 ‘대용맹이여!’라고 칭한 것처럼 결코 굴하지 않는 정진을 상징하고 있는 본존(本尊)의 보살이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엄신금강(嚴迅金剛)’이다. 중생의 번뇌를 끊는 데에 엄하면서도 그 능력이 솔직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삼매야형(三昧耶形)은 여의보주(如意寶珠)이고,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빛나는 연화(蓮華)에 앉아 왼손을 배꼽아래에 대고 보주(寶珠)를 지니고 있고 오른손에는 삼고검을 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마흔 즈음에…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입이나 책을 통해 수없이 들어 왔지만 심대와 이십대 때에는 그 의미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삶이 유수와 같다”는 말일 것이다. 그 시기에는 누구나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과 기대에 부풀어 있어서 간단 없이 흐르는 삶이라는 강물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다 나이 사십이 가까워지고 그간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쯤, 앞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삶이 유수와 같다”는 한마디 말속에 놓축시켜 놓은 깊은 맛에 비로소 감성적인 동화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심리적 동화과정은 나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려니와 주변의 친구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통해 볼 때, 마치 우리의 육

일치 사이에서 적응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삼십대를 보내고 이제 삶의 끝자락을 예감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찾아온 이 심리적 자각증상에는 삶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평가라고 할 만한 다른 차원의 무게감이 있다. 가령, 이를 수 있는 것과 이를 수 없는 것, 추구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겪어야 했던 사춘기처럼 인간의 몸으로 삶의 과정을 버텨온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삶의 본질에 한 발 다가서도록 차분하면서도 소박한 통찰지가 각 주체들에게 스스로 피어나는 존재의 자기확인 과정일 수도 있다.

물론, 자연물로서의 꽃들이 저마다 생김새와 향이 다르듯이 각자 살아온 지향점과 진지성에 따라 그 지혜의 색과 향이 다를 것이긴 하지만 느슨한 의미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인생’ 사십에 이르러서

사십대에 삶의 본질에 대한 자기 자각과 성찰 맛봄
종교란 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차원의 가치체계

체가 유아기와 성장기를 통해 이십대 중반에 완전히 성숙되듯이 나아가며 마흔쯤이 사람에게는 심리적 성숙기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삶이 유수와 같다”는 말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자각한다는 사건은 단지 술 한잔에 인생의 고달픔을 풀어보내는 푸념이상의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 동안 살아온 과정에 비추어 앞으로 살아갈 모습들이 미루어 짐작되는 이 시점은 단지 품었던 욕망의 뿌듯한 성취감과 좌절로 인한 상실감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통찰이 있다.

어린 시절 어느 펜가 우주를 인식하면서 존재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고, 우정과 사랑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가슴 설레던 사춘기를 지나, 지적호기심과 정의감으로 기득했던 이십대, 그리고 바람과 현실의 불

야 더 이상 세상일에 갈팡질팡하게 되지 않았다(不惑) 고 하신 공자의 솔직한 말이 지금 나에게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한동안 놓아두었던 불교철학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려고 있다.

말 그대로 종교란 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차원의 가치체계가 아니던가? 그리고 그 가치 체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던가! 그렇다면 불교라는 믿음체계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게 된 심리적 발화기에 당연히 성찰해 보아야 할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김선미/인드리망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이달의 명상

지눌스님은 “손님을 접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단체생활에 있어서나, 그 구성원은 서로가 아끼고 밀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한 집안 식구끼리라도 서로 헐뜯고 흉을 보게 되면 결국은 뜻이 어긋나 평화로울 날이 없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 집안의 허물을 집안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추어서 말하게 되면 그 집안은 마침내 파산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웃어른의 허물을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라.’는 유가의 교훈도 생겨난 것입니다.

남남끼리 모인 직장 및 일의단체에 있어서도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화합하고 단결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사활은 결정되어집니다. 서로가

단점을 찾아내어 헐뜯고 시비를 벌이거나 남에게 악선전을 하게 되면, 한 일 건너고 두 일 건널 때마다 과장되고 와전되어 결국은 커다란 파탄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알게 모르게 그 집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동하고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웃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람으로 인도하고 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웃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뜻으로 동료의 단점을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이 처음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각도로 확대 변질되고, 다시 왜곡된 내용이 본인의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감정싸움으로 전개되게 마련입니다. 일단 감정싸움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의 허물과 단점을 찾아 더욱 적극적인 비방을 하게 되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면 조작, 날조 등의 사태로까지 전개되어 마침내는 결원을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내 집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각도로 확대 변질되고, 다시 왜곡된 내용이 본인의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감정싸움으로 전개되게 마련입니다. 일단 감정싸움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의 허물과 단점을 찾아 더욱 적극적인 비방을 하게 되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면 조작, 날조 등의 사태로까지 전개되어 마침내는 결원을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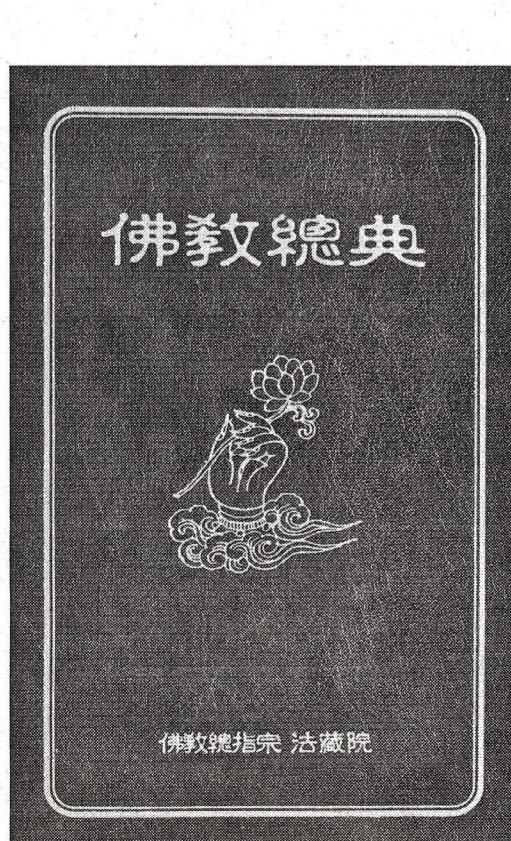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노인복지로 불심을 고취

대구, 부산불교계 노인복지관 개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과 대구 불교계가 밟고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관장 강규성)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빨래방 백의민족'을 5월 1일 개업하며, 불교사회복지회 대구 남구 노인인력지원, 기관은 '나눔의 가게'(재활용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불국도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부산여자대학과 연계, 복지 네트워

크 형성에 나섰다.

'빨래방 백의민족'은 풍년떡집, 해피케어 등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4명의 고정인원을 비롯 총 20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빨래방은 25kg, 18kg 2대의 세탁기와 건조기 1대, 간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세탁기 시운전 등 개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빨래방 백의민족'의 주요사업은 불교계가 북한 용천역 대참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돕기 운동에 나섰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돋기 위해 4월 28일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이불 100채를 보냈다.

북한 참사자들에게 애도와 위로

불교계 용천역 대참사 돋기 운동

불교계가 북한 용천역 대참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돕기 운동에 나섰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16일 부산여자대학 마리홀에서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 및 노인학대 쉼터 노인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대학의 물적·인적 지원을 활용한 노인복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양정재가복지센터와 개금복

대만 불광선사 성운스님 초청법회

국제흐름과 교육방향 불교적 접근강조

동국대학교(총장 흥기삼) 초청 대만 불광선사 개산종산 성운스님 초청법회 및 토론회가 4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성운스님은 설법을 통해 불교적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국제 흐름과 현대 교육의 방향에 대한 불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교적 시각에서 교육방식의 요체는 자각·실천·국제화·인간적 교육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각하는 교육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자 시절에는 스승이 있었지만 출가하고 나서는 당신 스스로가 스승이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이치를 증득하고, 수행은 바로 마음속의 지혜를 스스로 여는 것이다. 자각하는 교육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현재의 교육은 자료가 풍부하지만 실천이 부족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행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실천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만 가치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뛰어있는 만큼 언어는 필수적이고, 스스로 국제무대에 나아가야만 발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님 제세 시 단 한번도 부처님이 사회와 격리

불교종단협

불교문화체험행사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불교미술작품과 전통등 전시회, 단체과 개인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종단협 관계자는 "행사기간동안 연등점수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돋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원격전자 종무행정시대 개막

화상회의, 전자결재, 휴대폰서비스 도입

진각종은 4월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SMS)을 통해 진각종 스승 및 신교도들에게 종단의 각종 행사내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는 종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개통된 내부 전산망인 '네스크 플러스'에 부가로 제공된다.

진각종은 효암 통리원장 취임 이후 '전자종단 시스템'이라는 종·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전산화작업을 차수한 결과로 현재는 인터넷 상에서 모든 행정업무와 화상상담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

터 각 교구청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이버 심인당'을 운영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입체영상 법당을 만들어 영상포교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진각종의 전자종단은 불교계에서 종무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동승함으로써 온라인상의 포교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은 종무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동승함으로써 온라인상의 포교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통일염원 OP 점등식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 점등법회



조계종은 4월 23일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청룡부대 배영준 사단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전선 최전방인 애기봉에서 OP 점등식을 봉행하였다.

이날 법장 스님과 배영준 사단장은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북녘 땅까지 부처님의 자비를 담은 연등의 불을 밝혀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실현해 줄 것을 기원하였다.

또한 천태종은 4월 26일 철원에 위치한 육군 백골부대 멀공 OP에서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육군 3사단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하여 점등식을 봉행하였으며, 진각종은 4월 육군 비룡부대 509 OP에서 점등법회를 가졌으며, 태고종은 5월 10일 철원 청성부대 월정리 OP에서, 관음종은 5월 초 육군 열쇠부대 종각 OP에서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각 종단의 OP 점등식은 호국불교를 지향하는 불교계가 부처님의 자비공덕으로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북녘땅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아하섹스(www.ahsek.org)" 인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스님)은 4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청소년 성상담 사이트 '아하섹스(www.ahsek.org)'를 인수하고 인수식 및 창립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인수한 아하섹스는 지난 98년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인 이근후 고인이 보건복지부 지원 1억 6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제작한 것으로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왔으며, 청소년 성상담 문제와 관련해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아하섹스'는 약 십만회차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상담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크리니' 개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논문들이 학술적으로 발표되어 현재 국내의 청소년 상담 사이트 중 가장 전문적인 사이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행체험 ⑩

부처님 공덕의 위대함 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다녔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분만 받겠습니다. 하시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갈 때는 부처님 내일도 절에 오게 해주세요. 아침에 절에 오면 오늘도 절에 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난장기 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곳이라는 데가 어느 예언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예언가는 "아니 어떻게 지난 1년을 조용히 잘 보냈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매일 다닌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억만금을 끌어들인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면서 장하고 칭찬까지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 오면서 "스님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절에 나

지금 27살이 되었지

만 그때 작은 아들을 데리고 법장화 전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설법하시는

모습이 선선해 보이시고 그 분의 눈빛은 빛이 났던지...

이렇게 해서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밀교가 무엇인지 뜻도 모르고 음마니반메훔의 뜻도 모르고 일요일이면 두 아이를 데리고 마냥 총지사를 갔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일년에 한번씩은 무당을 데려다 끊으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다가 총지종에 입문하셔서 끊으시는 모습을 안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반갑고 다행스러웠는지 몸입니다.

처음 시어머님의 제도로 진언연승을 하게 되었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다니며 불공하여 재난을 막음

이렇게 시작된 저의 종교생활은 그리 충실히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남편이 항상 꿈에 소와 싸우고 소에게 쫓긴다는 꿈을 꾸나고 하던 사람이 어느날인가 부터는 그런 꿈을 예보보다는 좀 덜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총지사로 향했습니다. 불공을 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남편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즘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게 해 주세요." 하여튼 저는 남편 목숨을 연장시키느라고 딴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총지사에 다니면서 불공을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채워보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절에 다니다가 49일 동안 매일 다녀보고 그다음에 100일 채우고 1년을 다니는 동안 눈물이 쏟아지도록 슬퍼기도 하고 가슴이 쓰리도록 속상한 일도 생겼습니다.

이침 6시에 절에 갈 때면 "그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던가"하고

《다음호에 계속》



명제한의원

명제한의원은 첨단 의료기기와 안락한 진료실, 최상의 진료서비스로 여러분 가정의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문클리닉

다이어트 비염

명제한의원

원장 김준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7-29번지

한일빌딩 2층

전화 : 02)595-1075(한방치료)

진료시간

평일 : 오전 10:00 ~ 오후 6:00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4:00

점심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공휴일 : 예약진료합니다. 일요일 : 휴진



주차안내 : 언덕사거리에 있는 방배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사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통영
단향사

항상 선업을 짓고, 매일 매일 지심으로 참회하라

봄의 향긋한 기운이 온 대지를 뒤덮으며 들에는 파릇파릇 새싹들이 돌아나 봄의 생명이 용솟음치며 올라오고, 산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들로 자신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듯이 꽃 향연을 펼치며 자태를 자랑하고, 아름다운 꽃 숲길을 버스를 타고 통영에 들어서니 넓게 펼쳐진 남해안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마치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인도하는 듯이 낯설지 않는 풍경이 디자인 것을 보니 전생의 인연에 의해 이곳으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아름다운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통영 단향사를 찾아가 본다.

단향사의 유래

통영 단향사는 총기17년 통영시 북신동 333-10번지 건평 37평에 전세로 입주하여 삼락서원당으로 개설하여 정법계 전수님이 교회하였고, 총기 24년 북신동3-11번지 2층 주택에 입주하여 단향사로 개칭하고, 총기27년 무전동 797-63번지에 대지 54평 2층건물을 매입하여 서원당으로 개설하여 정법계, 해정 스승님이 교회하시다가 총기29년 현재 주교인 자선화 전수님이 교회하시고 계신다.

자선화 전수님의 법문을 들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깨달음이다

불법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습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이고 가장 지혜를 잘 닦는 일입니다. 자제로써 우치를 다스리고 차비심으로써 분노심을 다스리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복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선행을 쌓은 결과 얻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복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온갖 작물이 자라고, 마음의 밭에 선행을 심으면 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글 잘하는 사람은 문복이 있다하고, 이빨 좋은 사람은 치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갖 복이 우리 주위에 기득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는 못하지만 벼슬을 잘하는 사람이나 있는가 하면 공부는 잘해도 벼슬운이나 관복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전생에 지은 대로 받는 경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탓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서 온다는” 말도 이 맥락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보면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였지만 허망하다는 말만 들려 준다고 하여 무상함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한 것을 깨우치되, 팔순 할머니와 스무살 처녀를 같이 볼



걱정 없어’ 하면서 안심시켜 주는 것,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할 때 ‘그런 염려 말아, 그려 있으니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무의시입니다. 부처님이 내 뒤를 바짝 따라다니신다고 믿으면 총알이 빗방울처럼 날리는 전쟁터에 나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하는 초발심으로 수행하라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났더라도 불법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그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자기가 직접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요령히 눈 먼 거북이가 깊은 바다 속에 살다가 천년에 한 번씩 머리를 물밖에서 내밀고 큰 숨을 들이키게 되는데 머리를 내밀었을 바로 그때 요령히 구멍 뚫린 나무가 있어 그 구멍에 머리를 걸게 되면 아주 푸근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눈 먼 거북이의 복에 구멍 뚫린 나무가 걸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듯이, 사람의 몸을 받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을 하다보면 마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다보면 “귀신 씬나락 깨먹는 소리 하지 말라.”하고 편지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교화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불공법으로 인해 많은 장애를 막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종조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 결과정진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정진을 할 때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차서 ‘어떤 것을 주십시오, 사업이 잘되도록 으뜸이 되도록’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별을 주십시오’, ‘라고 번뇌와 분노심으로 가득차서 정진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결과정진을 할 때는 마음속에 옥구술이 비단위에 헤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났더라도 불법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그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자기가 직접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즉 자신에게 관련된 일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사고로 보지 말고 자기자신을 저 멀리 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법은 거짓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那样的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십중팔구는 자신이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업을 짓고, 매일 매일 지심으로 참회하라. 그런 연후에 부처님께 자신으로 발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자신이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자신의 탐친치 삼복에 의해 이루어지고 연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과법도 좋은 인을 지을 때 좋은 과를 받고, 나쁜 인을 지을 때 나쁜 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을 베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함으로써 선업을 쌓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불법을 만나 수행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인연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생다겁 동안 착한 업을 지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만나 수행하는 자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 수행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자 맡았다고 수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마음이 퇴색되어 수행에 소홀해지고 과연 내가 수행함으로써 불도를 이룰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신심이 삼솟기를 기다리면 백 년이 지나도 신심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빈 마음으로 부지런히 퇴색되어 가는 마음자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한 때의 그 순수한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초심을 거듭거듭 되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초심이

말로

부처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

요,

불문을

열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부디 이 첫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거듭거듭 되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은 인과법임을 알아야 한다.

서원당에 앉아 염송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업장과 미래에 닥쳐올 마장을 알고 법에 따라 지심으로 불

인 터 뷰

단향사 주교 자선화 전수



자선화 전수

1. 자선화 전수님은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행과 실천으로 수행적인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얻은 공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이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게 되는 좋지 않은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아 보면 신, 구, 의 삼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몸으로는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짓고, 입으로는 거짓말, 추악한 말, 이간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내뱉으며, 생각으로는 탐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이러한 것은 나에 대한 사랑에 사무쳐 나에게 맞으면 탐심을 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며, 나에게 사로잡히다 보면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들고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행을 지킴으로써 모든 번뇌와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계행은 수행의 근본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얻은 공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항상 부처님의 법을 만나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2. 현재 각 사원에서는 교도가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총지종에 입교 할 당시에는 정각원 전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절에서 먹는 바빔밥이 왜 그렇게 맛있었던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그리울 뿐입니다.

그때 보살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전수님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보살들이 공덕을 얻고, 그 보살들이 지금까지 저희 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철저한 계행을 지킴으로써 모든 번뇌와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많은 보살들이 정각사에 몰려들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꾸자고 하지만 무작정 대책없이 바꾸는 것보다는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단의 정체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교회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4. 전수님을 만날 때마다 수행자로서 수수하고 청아한 모습 그대로 항상 밝은 웃음으로 젊음을 유지하며 살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과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나듯 우리의 육체도 나이가 들다 보니 아픈 곳도 생기는데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송을 하다보니 마음속에 고리움과 분노심이 사라져 얼굴에 나타나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 염송을 하는 것은 정신치료에 탁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화가 진행 될수록 정신소외현상과 고립감으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지수를 높게 잡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언 염송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알고, 항상 부처님의 법을 만남에 감사하고, 모든 일은 자신의 잘 못에 의해 생긴다는 참회가 있을 때 해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5. 미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단향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지종의 진리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많은 공덕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총지종에 입교하게 된 것은 인연의 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총지종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위대함과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한 스승들에게 가장 보람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미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단향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총지종에 입교하게 된 것은 인연의 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총지종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위대함과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도들이 이 위대한 법을 자신만이 향유하지 않고 자녀들과 이웃사람들에게 제도해 주기 바라오며, 비록 조리한 수행공간이지만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듯 주위의 사찰들이 웅장하고 큰 부처님이 모셔져 있더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언염송을 통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직접 이야기도 하고 소원을 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끊을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쪽은 예쁘고 저 쪽은 맑다는 차별심이 있으면 말로만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복 짓는 일 중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 보시를 하고 복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에는 재시·법시·무의시가 있는 데 그중에서도 무의시가 제일 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는 무의시야말로 최상의 보시이고 가장 복을 잘 짓는 일입니다. 종생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아이구 이걸 어떻게 하나?’ 할 때 ‘어떻게 하긴 무엇을 어떻게 해. 아무

모든 것은 인과법임을 알아야 한다.

서원당에 앉아 염송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업장과 미래에 닥쳐올 마장을 알고 법에 따라 지심으로 불

